

선물 거래 부진의 이유

지난 주 중반 이후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음.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옵션시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했음. 옵션 프리미엄의 추이를 파악하는 방식임

유럽과 달리 안정적인 경기지표를 보이고 있는 미 증시의 반등흐름이 연출되었다. 이에 따라 선물 6월물 역시 상승 출발했다. 지난 주 중반 이후에는 상승 출발 이후 이내 약세로 전환했으나 전일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선물 6월물은 0.95p 상승한 243.5p로 마감했다. 선물 거래량은 7만 3,000계약으로 매우 부진했고 미결제약정은 3,000계약 가까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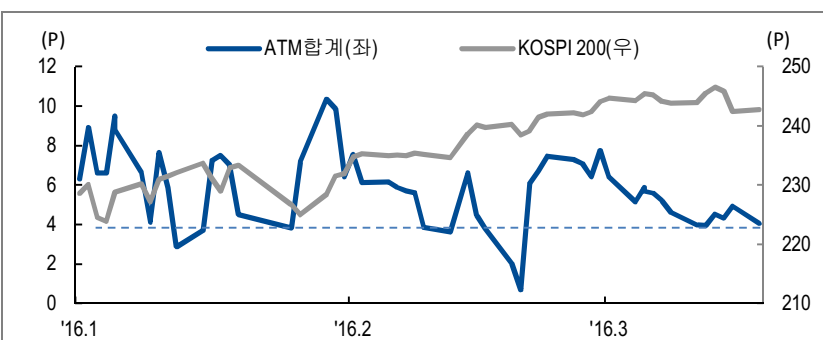
선물 거래 부진의 이유

전일 선물 거래량은 7만 3,000계약에 불과했다. 이러한 거래 부진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이다. 지난 3월 25일에는 6만 3,000계약을 기록했고 3월 28일에는 7만 1,000계약을 나타낸 바 있다.

선물 거래 부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우선 헤지수요 즉 하락 리스크 축소에 따른 거래 감소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선물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KOSPI 200 관련 파생형 ETF와 미니 KOSPI 200 선물 등이 대표적인 경쟁 상품이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헤지수요 축소를 검증하기 위해 콜과 풋옵션의 ATM 프리미엄 합계를 추출했다. 시장의 불안요인이 크다면 프리미엄 합계가 높을 것이다. 현재 ATM 프리미엄의 합계는 4p 가량으로 지난 1월물과 2월물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선물 거래 부진의 원인은 하락 리스크의 감소에 기인했다는 판단이다.

Derivatives Key Driver Chart: 콜과 풋옵션 ATM 프리미엄 합계 추이(최근월물)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Derivatives Daily | 2016. 4. 5



Derivatives 최창규

02)768-7600, gilbert.choi@nhwm.com

Contents

I	파생상품 시장	1
II	Stock Futures Summary	2
III	K200 선물 주요지표	3
IV	K200 옵션 주요지표	4
V	투자자별 매매동향	5
VI	주요 기술적 지표	6
VII	프로그램매매 추이	7